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3호 현대불교

29

2011년 4월 27일(음 3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문)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찾아 있는 습에 자꾸만 속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공부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답) 그래서 부처님게도 모든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서 되니라. 이렇게 '방학'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게, 안에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월치월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생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모두 놓지 않는다면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하나 자기 그 모든 수 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 라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불을 게 잊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불을 게 잊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놓고,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떠달리지 말고 하나 하나 놓는다면, 그 수 십억 마리 중에, 즉 말하자면 육신 속에서는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차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해서 보살이 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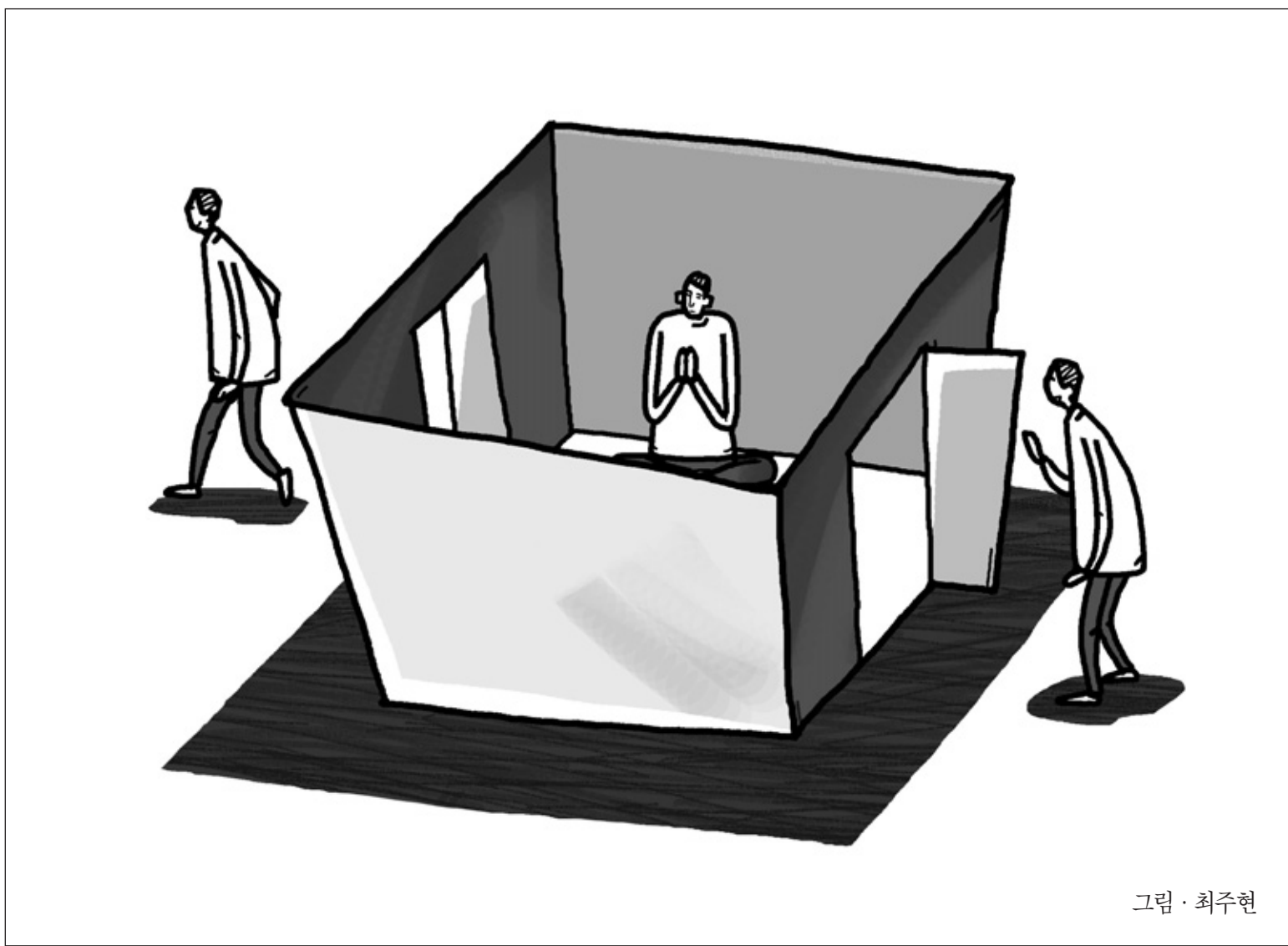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는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으면 세 쇠로서 생산이 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중에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하고 목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하고 귀구멍을 통해서 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것을 다 녹인다면,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가 아주 물이 없는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다. 돌을 갈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물을 잘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

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씩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것을 카세트로 비유한다면 카세트에 먼저 넣은 것은 나중에 넣은 것에 의해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악업 선업의 그 카세트를 짚어지고 나온 것을 바로 그렇게 놓고 간다면 그렇게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나, 바로 여러분의 그릇이 항상 비니 어느 거라도 담을 수 있는 거고, 담으면 없어지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투가 거칠어 걱정입니다.

문) 스님께서는 항상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을 하라 가르치시는데 사실 저는 말투가 거칠어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역시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오해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들녀석이 꼭 저를 닮아 가서 걱정입니다.

답) 언젠가 흑인이 어린애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걸 끌고 가면서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예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합니다.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ですよ.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을 생에 다시 진화해서 바뀌는데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오게 될까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마는 말합니다. 삶은 다 똑같은거야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자식이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라고 항상 그랬는데 아, 판은 죽어서 소가 됐습니다. 소가 돼서 자기네 그 소매 놓는 데, 외양간이라 그러죠? 외양간에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콩이나 이런 거 그냥 썰어서 다시 쥐어판이 이렇게 먹고 아, 이러니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시니까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스님한테 여쭙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엄청난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저,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는 거 있죠? 여물, 여물을 썰어서 먹는데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봐야 알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소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한테 말 버둥이치고 하소를 하고 음메 음메 하고 애틀 써도 그거는 사람한테는 아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30면으로 계속

“일이 잘 안 풀리시죠?”

-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구요?”
-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질 않는다구요?”
-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장천 백구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은당 문성 →
희운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모든 거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 되놓으세요

29면에서 계속

그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져있고, 또 하나로 뭉쳐져있고,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화해서 해 나온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나를 '야, 불렀더니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두뇌입니다. 두뇌가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거든요. 제 집이 없어지거든요. 제 집 말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 집이 망가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그냥 뭐, 영계성이든지 무슨 세균성이든지 뭐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이고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이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할 걸 다 한다면 그 모든 게 그냥 삼시간에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니까 전백역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 이라한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이 모두가 뜻이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동일 접이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야 몸동일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아이구,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강릉밖

엔 못 차." 이라고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그냥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 북 북어서 화를 내고 인제 이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안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까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는다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면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할 할 겁니다.

죄의식이 없다면

문)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는 죄도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의식이 없어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 오히려 혼란이 아니 옵니다. 죄가 있다고 의식을 하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여지없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한 찰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그대로 그냥 될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모두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고 누가 말을 해 봤는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건 안 이르러면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했다 말입니다. 자기가 한 사이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이가 없어요. 왜냐? 바로 자동차가 말입니다. 부딪쳐서 찌그러졌는데, 그 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어때요? 기름이 없어서 차가 안 가면 차가 잘못해서 안 가는 겁니까? 어디가 고장났으면 차가 잘못해서

서 고장났습니까? 우리 모습은 차와 같아서 자기가 한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고도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그건 나쁜 일 한 게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한테 어떤 시련이 오겠죠. 그러니까 시련 오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게 요양 있게, 좀 현명하고 어디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죄가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그냥 사는 대로 관하면서서 내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하세요.

어떠한 부당한 일이 있다 해도, 언젠가 회사를 잃고 한 남자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취직을 하려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하고 살면 다 되는 수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지 뭐를 어떡합니까? 이 도리를 뭐 금방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편지로 전후사를 써서 보냈더군요. 난데없이 어느 친구를 길에 오다가 만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취

해탈해야 업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으면 업이 업을 녹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업을 녹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탈을 해야 업을 완전히 녹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이거 보세요. 아, 해탈을 했다면 녹이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이 말입니다. 업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업 붙을 자리가 없어요.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마음이 체가 없는데 어떻게 병고가 붙고 업이 붙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체로, 이 물질로다가 생각을 하나만 업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가 뭐 그렇게 쉽게 녹아질 수가 있나 이러지마는 체가 없는 걸로 생각을 딱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에다가 물을, 수천 방울을 바다에다가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천 방울을

녹이는 데는 어떠한 물건으로 돼 있다가 그냥 그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면 그냥 재생이 돼 나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와요. 그 쇠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쇠를 주문을 받는 대로 그냥 찍어서 또 내보내죠. 금도 그렇고 만약에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그런 것도 끼었다가 좀 찌그러졌거나 또 돈이 없거나 그러면 금방으로 갑니다. 금방으로 가지 넘마전으로 가진 양조, 금방으로 가면 금방에서는 목걸이 했던 것을 그 금을 녹여서 그 금 양으로 이렇게 해 놓을 때에 반지라도 돼 나갈 수 있고, 팔찌로도 돼 나갈 수 있고, 별걸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귀걸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바뀌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려면...

문) 요즘은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고 학교 교육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물질계의 자기 육신과 정신계의 안 보이는 자기를 둘 이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신계의 자기라는 거를 모르고 항상 자기가 겉대기인 육체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 나가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똑같은 자기가, 정신계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계에 주력하는 것은, 부모라는 거하고 자식이라는 거하고 이 전기가 치면 가설이 된 거와 같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관해 줘도 이쪽 자식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영이고 또는 부모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을 한데 합쳐도 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자식의 마음에서도 불이 들어와서 올바르게 이끌어진다. 말로써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그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양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이렇게 부모의 기일이나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자극한다면 자식들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싸우면 그냥 혼란을 일으키는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든 살아 계시든, 잘 보살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나’라는 아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거기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끄달리지 않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그 하나하나가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을 했다고요. 이것이 모두가 쪼그마한 일 같지만 한 가정의 문제가 어떤 집들은 자손들이 셋씩 병어리, 육체 못 쓰는 사람, 또 머리가 이상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이사는 겁니까, 그게?

하야간에 그런 도리 저런 도리 다 자기만이 할 수 있으며 또 구원을 청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기에 달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하는 걸 요양 있게 배우세요. 인생이 살아야 하는 것이 그냥 물 흘러내리듯 하니까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자꾸 나투어서 그냥,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죄를 졌다. 어느 때에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여기 벌써 '과거'와 '현재'가 다 나를 통째로 통째로 해 나간다면 여러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익하게 보시고, 음으로나 양으로나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보시고, 이렇듯 나가자,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하게 돼 있죠. 저절로 안 하게 돼요. 그런 겁니다.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꺼내도 또 줄지도 않아요. 그놈의 거는.

그러니까 업이 본래 붙을 자리가 없는데 모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가 붙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그 관습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가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꿈을 꾸고도 사람들은 '아이구, 인제 죽었다. 이 꿈이 죽을 꿈이 이게 살 꿈이 아니고 이게 다 무너질 꿈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질 꿈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지는 걸로 볼 때에 '응, 일이 다 무너져서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뀌어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없느냐 이 소립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좋게 현실로 나올 것이고 언짢게 생각을 하면 언짢게 현실로 나와요. 꿈이 생기고 생기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 쇠든지 새 쇠든지 쪼가리든지 간에 그냥 재생처로 들어가는 데는, 그 업을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민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치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남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계,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랑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장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장판, 일반기와장판, 스테트형장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योग마를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성명)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